



EBB 실모공방

2027학년도 대비

기본편 BASIC

2027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문논술 실전 모의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 6문항 11소문항 · 80점 · 120분

2027 모의논술 가이드북의 문항 형식·배점 반영

공식 모의와 같은 채점 방식(체크리스트형·수준형)

2026년 최신 시사 통계 + 고교 교과서 제재

BASIC

실전 모의고사

제0회

이 파일은 EBB 실모공방이 자체 제작해 무료로 공개한 교재입니다.

공유할 때는 파일 대신 내려받은 곳의 링크를 보내 주세요.

제0회 실전 모의고사 · 인문계열 · 기본편

시험 시간 120분 (목표 풀이 시간 90분) · 6문항 11소문항 · 총 80점

수험번호

성명

응시 유의사항

1.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실전과 같이 시계를 두고 끝까지 풀어 보십시오.
2. 답은 반드시 답안지의 해당 문항 칸에 쓰십시오. 문제지에 쓴 답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3. 계산기와 사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그래프의 수치는 암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4. 각 문항의 ※ 조건(문장 수, 글자 수, 반드시 넣을 표현)을 지키지 않으면 감점됩니다.
5. 답안은 검은색 필기구로 작성하십시오(연필 사용 가능).

문항 구성

문제	배점	문항 형태	답안 조건
문제 1	20점	표 해석 → 판단·선택 + 이유 쓰기	2문장 이내 / 3문장 이내, 필수 표현
문제 2	10점	반박 관계 요약, 빈칸 찾아 쓰기, 증감 판단	200자 이내 / 각 6자 이내
문제 3	10점	그래프 해석 + 제시문 핵심 주장	300자 이내
문제 4	17점	사상 빈칸 + 제시문 근거 서술	300자 내외
문제 5	13점	한국사 시간 순서 배열 + 용어·반론	100자 내외
문제 6	10점	상황 속 안내문 쓰기	200자 내외

답안 작성 요령

- 글자 수는 공식 모의 가이드북의 예시 답안과 채점 기준에 맞추어 씁니다. 서술형 답안은 띄어쓰기를 포함해 세고, 빈칸 단답의 '각 ○자 이내'는 띄어쓰기를 빼고 씁니다(공식 예시 답안은 '각 6자 이내' 빈칸에 '노령화의 추세'를 인정했습니다).
- 원고지는 띄어쓰기·문장 부호·숫자 한 자리도 한 칸입니다.
- 발문의 가)·나)는 답을 나누어 쓰는 칸의 표시이며, 답안지의 같은 표시 칸에 씁니다. 제시문 (가)·(나)와는 다릅니다.
- '○○자 이내'는 한도를 넘기면 감점합니다. '○○자 내외'는 기준의 85~115%를 목표로 쓰고, 50%에 못 미치거나 150%를 넘으면 감점합니다.
- '찾아 쓰시오'는 제시문에 있는 말을 글자 그대로 옮겨 씁니다.
- 제목이나 서명을 쓰면 글자 수에 포함됩니다(쓰지 않아도 감점은 없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공식 자료가 아닙니다.

제0회 v3.23

문제 1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십시오.

20점

(가)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단계적으로 늦춰져 1969년생부터는 65세가 된다. 이 때문에 60세에 퇴직한 사람은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 동안 소득이 끊기는 '소득 공백'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년 연장의 가장 큰 쟁점은 임금 체계이다. 많은 기업과 공공 기관은 일한 햇수에 따라 정해지는 임금, 곧 호봉급이 해마다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어, 정년이 늘어나면 임금이 가장 높은 고령 근로자를 더 오래 고용해야 한다. 그래서 일정한 나이부터 임금을 줄이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거나, 근무 연수 대신 맡은 일의 가치에 따라 정해지는 임금인 직무급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년 연장과 임금 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하자는 쪽은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소득 공백 해소, 인건비 부담 완화, 청년 신규 채용 증대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표 1 임금 체계의 특징

구분	임금 결정 기준
호봉제	근무 연수 중심
임금 피크제	근무 연수 중심 + 일정 나이 이후 감액
직무급제	맡은 직무의 가치·난이도 중심

표 2 공공 기관 B의 현황 및 정년 연장 계획

구분	항목	내용
기관 규모	전체 직원	1,000명
현황	정년	60세
	임금 체계	전 직원 호봉제
계획	정년	63세
	임금 구성	호봉급 80%, 직무급 20%
	호봉 승급	55세까지 해마다 승급
	임금 피크제	58~60세: 55세 임금의 90% 61~63세: 55세 임금의 70%
중요 유의사항	연간 총 인건비	계획 시행 전보다 4% 증가
	호봉 승급·임금 피크제 조정으로 줄어드는 인건비	전액 정년 연장 인원(61~63세)의 임금으로 사용
	신규 채용 규모	매년 50명(정년 연장 뒤에도 줄이지 않음)

- 1-1
- 표 2를 바탕으로, 공공 기관 B의 임금 체계에서 근무 연수 중심 보상의 상대적 중요성이 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하고, 나) 그 이유를 쓰시오. (10점)
- ※ 나)의 답안은 반드시 2문장 이내로 작성하고, 답안에는 반드시 "호봉제"와 "직무급" 또는 "임금 피크제"라는 표현을 포함하십시오.
- 1-2
- 표 2의 자료에 근거하여, 공공 기관 B의 계획이 제시문에 제시된 목적(① 고령 근로자의 소득 공백 해소 ② 인건비 부담 완화 ③ 청년 신규 채용 증대) 중 어느 목적을 가장 직접적으로 겨냥하는지 가) 목적 하나를 고르고, 나) 이유를 쓰시오. (10점)
- ※ 나)의 답안은 반드시 3문장 이내로 작성하십시오. 답안에는 표 2에 제시된 수치를 반드시 활용하고, "확대"라는 표현을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답안에는 가)에서 고른 목적의 핵심어를 그대로 포함하십시오.

■ 채점 공통 규칙

- 서술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해 세고(원고지 한 칸 = 한 글자), 빈칸 단답의 '각 6자 이내'는 띄어쓰기를 빼고 센다(공식 모의 2-2가 '노령화의 추세'를 정답으로 인정한 방식). 숫자는 한 자리에 한 칸(1,000은 쉼표 포함 5칸, 17.4%는 5칸), 띄어쓰기·문장 부호·기호도 한 칸이다. 원고지 한 칸에 두 글자 이상 몰아 쓴 경우 칸 수가 아니라 글자 수로 다시 센다((가)는 3자, 0.65는 4자).
- 문장 수는 마침표·물음표·느낌표로 센다. 소수점(0.75)은 문장 끝이 아니다. 'N문장 이내'를 넘기면 2점을 뺀다(공식 기준과 같음).
- 1-2 선택지 핵심어는 정답 선택지의 핵심 낱말 가운데 하나가 글자 그대로 들어 있으면 인정한다(공식 모의는 '경쟁 부재'와 '비효율성' 가운데 하나를 인정). 이 회차의 핵심 낱말은 공백이다. 소득 공백, 공백 해소, 연금을 받기까지의 공백처럼 공백이 글자 그대로 들어 있으면 인정하고, 띄어쓰기·조사가 달라도 같은 낱말이면 인정한다(소득의 공백). 비슷한 말로 바꾼 것(소득 단절, 소득이 끊기는 기간)과 선택지의 대상만 가리키는 말(고령 근로자)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에 쓴 선택 표기는 핵심어로 세지 않고, 가)가 틀리면 핵심어는 0점이다.
- 빈칸 답(㉠ 등)은 답안지의 단답 칸에 따로 쓰므로 서술의 글자 수에 넣지 않는다. 서술 칸 안에 쓴 표지('반론:' 등)는 센다.
- 찾아 쓰기 단답은 지문에 있는 말로 쓴다. 공식 모의가 '노령화의 추세' 자리에 '노령화'와 '인구 노령화'를 함께 인정했듯, 정답의 핵심 낱말을 살린 채 꾸밈말을 덜거나 더한 답과 빈칸 앞뒤 말이 겹친 답은 인정한다(예: 2-2 ③의 세수의 변동성, 4-1 ㉠의 경향성, 4-1 ㉡의 높은 도덕적 가치). 지문에 없는 낱말로 바꾼 답, 빈칸이 가리키는 것과 다른 대상(더 넓은 말, 다른 개념)을 쓴 답은 0점이다(예: 2-2 ③의 출렁임, ①의 지출, 4-1 ㉡의 가치). 글자 수 조건이 있는 빈칸(2-2)은 한도를 넘기면 0점이다.
- 상한 규정은 최대 점수만 정한다. 다른 감점과 겹치면 낮은 쪽을 따른다.
- 반박 요약(2-1)은 공식 모의처럼 수준형으로 본다. 수치 인용은 요구하지 않는다. (나)에 있는 사실을 거꾸로 단정하면(예: (나)에서 늘어난 것을 '늘지 않았다'고 씀) 3점이 상한이다.
- 1-2의 수치는 표에 있는 수치나 그것으로 바르게 계산한 값만 센다. 잘못 옮기거나 틀리게 계산한 값, 단위가 틀린 값(%p를 %로 쓴 것)은 세지 않는다.
- 그림 해석(3번)은 수치를 쓰지 않아도 바르게 읽었으면 감점하지 않는다(공식 예시답안에도 수치가 없다).
- '○○자 이내'는 한도를 넘기면 1점을 뺀다. '○○자 내외'는 기준의 50%에 못 미치거나 150%를 넘을 때만 1점을 뺀다(공식 채점기준에는 분량 감점이 없고, 공식 6-1 예시답안은 기준의 132%다). 연습할 때는 85~115%를 목표로 쓴다.
- 6번의 핵심어는 조사·활용이 달라도 같은 낱말이 들어 있으면 인정한다(예: 차별적인, 존중하는, 상처를). 목록에 없는 비슷한 말은 세지 않는다.
- 6번의 글 형식(존댓말, 인사, 받는 사람·보내는 사람, 맺음 말투)은 지문이나 발문이 요구한 것만 채점한다. 요구가 없으면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감점하지 않는다.
- 답과 무관한 글·표식(낙서, 자기 이름·학교 등)은 글자 수에서 빼고 채점하지 않는다. 실제 시험에서는 신원 표식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쓰지 않는다. 글의 종류에 맞는 말머리나 서명('학생회입니다')은 글자 수에 넣는다. 인사말('안녕하세요')은 글자 수에서 빼고, 연설·발표처럼 문항이 청중을 부르는 말을 요구하면 본문으로 센다. 상황에 나온 인물 이름으로 글쓴이를 밝히는 것은 신원 표식이 아니다.
- 5-1 배열은 다른 항목과 구별되면 항목 이름을 줄여 써도 인정한다(예: 수미법 건의, 경기 대동법, 대동법 전국 확대). 두 항목에 함께 해당하는 줄임말을 쓰면 그 칸은 틀린 것으로 본다(예: 대동법만 씀). 모두 맞아야 5점이다(공식 기준).
- 선택·판단형 가)를 틀리면 가)는 0점이다. 나)에서는 필수 표현과 필수 요소만 채점하고, 정답 방향이 필요한 요소(논리·연결·핵심어)는 0점이다.
- 필수 표현은 띄어쓰기 차이만 허용한다(임금 피크제와 임금피크제는 같은 표현이다). 필수 표현 "확대"는 문장 어디에 있든 들어 있으면 인정한다(공식 기준 "확대 포함 1점").
- 감점은 그 문항의 요소 점수 합에서 빼며, 문항 득점은 0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문제 1 · 정년 연장과 임금 체계

20점

1-1 표로 증가·감소 판단 + 이유 2문장

10점

■ 정답과 예시답안

- 가) 감소
- 나)

공백 포함 **142자** · 공백 제외 108자 · 2문장 · 조건 2문장
공공 기관 B는 전 직원 호봉제였던 임금을 호봉급 80%와 직무급 20%로 나누고, 호봉 승급도 55세까지만 한다. 또 58세부터 임금 피크제로 임금을 55세 임금의

90%, 61세 이후 70%로 줄이므로 근무 연수 중심 보상의 상대적 중요성은 감소한다.

■ 채점 체크리스트

- ☐ 가) '감소'로 판단했다 (증가·변화 없음은 0점) **3점**
- ☐ 나) "호봉제"라는 표현이 있다 **1점**
- ☐ 나) "직무급" 또는 "임금 피크제"라는 표현이 있다 **1점**